

〈갯벌의 경제적 가치〉

사람과 생물의 '삶의 터전'

글_ 최미희 생태경제연구소장 miheec@snu.ac.kr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가치
물고기의 요람에서 대지정화, 자연재해 예방까지

갯벌은 모래갯벌과 개펄로 나뉜다. 갯벌은 갯가의 개흙땅 또는 진흙땅이라는 뜻으로, 바닷물이 들락거리면서 육지와 바다를 이어주는, 육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공유수면이다. 물이 빠진 갯벌은 아무 것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저 평평하고 드넓은 땅으로 보인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이고 인구가 7천만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광활한 면적이 쓸모없이 남아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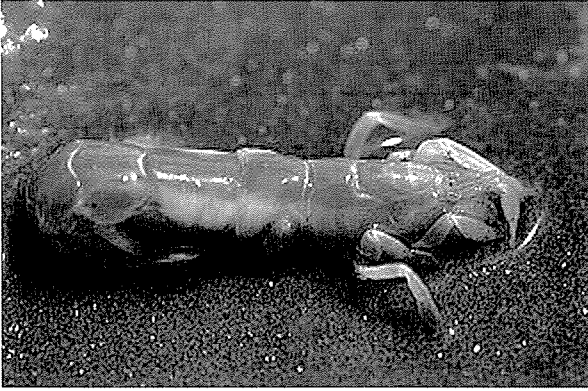
그래서 사람들은 갯벌을 매워서 산업용지나 농지처럼 경제성을 높이고 싶어 하기도 한다.

하루 종일 조개를 캐는 것보다 자동차를 만들고 농사를 짓는 용도로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서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을 간척해서 직선으로 만드는 꿈을 꾸게 되었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갯벌의 경제성을 높이면 우리 사회 모두에게 이익일 터인데 왜 새만금갯벌의 간척은 그렇게 시끄러운 사회문제가 되어 버렸는가. 갯벌은 흔히 생각하듯이 산업용지나 농지보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단·농지보다 더 큰 가치 있다

우리나라 서해 갯벌은 일반 갯벌과 강하구 갯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갯벌에는 조개, 낙지, 게와 같은 저서생물, 이들을 먹이로 하는 각종 철새, 그리고 그런 생물들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다. 이렇듯 갯벌을 둘러싼 갯벌과 갯벌





썩붙이



에 사는 생물, 그리고 인간 사회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구분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공동망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다. 갯벌은 하나의 덩어리로 사람과 생물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인 갯벌은 인간에게도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갯벌이 수산물 생산 공장이라는 점이다. 갯벌을 기어다니거나, 구멍을 뚫고 살고 있는 생물은 물론이고, 연안이나 너른 대양에서 잡혀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물고기들도 대부분 갯벌을 산란처로 삼고 있다. 갯벌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이 갯벌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채취하는 수산물의 종류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는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갯벌을 매워서 공장과 농지를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부족해지는 수산물을 조달하기 위해서 바다속에 물고기 아파트를 지어주는 바다목장 사업에 엄청난 노력과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 자연의 아파트를 파괴하고 우리 마음대로 지은 아파트를 물고기가 좋아할 리가 없다. 그래서 자연을 잘 아는 농부들은 바다목장을 지을 돈을 어부에게 주면 훨씬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갯벌은 해일과 홍수에 대한 우리의 보험이기도 하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성난 파도와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는 태풍의 파괴력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화석 연료의 대량 소비로 나타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 서해안도 100년 뒤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1m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그런 재앙이 닥칠 때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것도 역시 갯벌뿐이다. 육지에서 강을 따라 떠내려온 퇴적물이 쌓이는 곳이 바로 갯벌이기 때문이다. 갯벌은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까지도 모두 흡수해서 사람들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험이라는 사실이 갯벌의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오염물질 정화하는 '대지의 콩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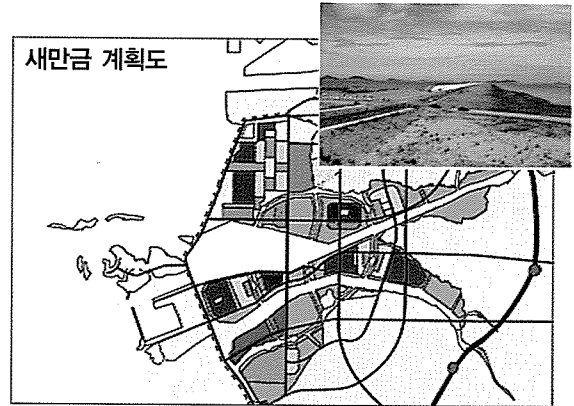
갯벌은 육지에서 도착한 오염물을 걸러주는 대지의 콩팥이기도 하다. 우리는 수도권 상수원을 비롯한 4대 강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다. 하천의 홍수를 막기 위

해서 강변에 옹벽을 쳐서 하천의 수질 정화 기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으로 오염된 강물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도 농업용수인 4급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강물이 연안의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일을 바로 갯벌이 하고 있는 셈이다. 갯벌의 미세한 입자로 된 흙, 갯벌에 사는 각종 미생물과 저서생물이 인간이 버린 오염물을 먹어치운다.

또한, 갯벌은 어머니의 자궁(서식지)이고 생물학적 슈퍼마켓(생물다양성)이기도 하다. 갯벌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들지만, 누구도 다투지 않고 서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갯벌은 모든 생물을 부양하는 어머니인 것이다. 무서운 해일과 폭풍을 통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도 한다. 재해를 겪으면서 갯벌은 더욱 건강해지는 셈이다.

갯벌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갯벌은 일부의 남획으로 사막화되기도 한다. 제주도의 일부 해안에서는 관광객이 좋아하는 전복 종패를 바다에 잔뜩 뿌리는 바람에, 전복이 해초를 모두 먹어 치워 사막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갯벌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터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자연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하는 곳이고, 잃어버린 우리의 자아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갯벌은 고대 농경 및 해안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강하구 갯벌에 사는 사람들은 강이 제 모습을 잃으면 그 지역이 죽는다고 생각한다. 강을 중심으로 농경문화가 이루어졌고, 그 강이 다다른 갯벌을 중심으로 해안문화가 피어났다. 어업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마을, 논농사가 주업이고 어업이 부업인 마을, 논농사가 주업인 마을이 강과 갯벌을 끼고 소박하게 자리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당산제(동제), 풍어제, 용왕제 등을 지내면서 종교적, 민속적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녕을 기원하는 각종 신화가 발달해 있다. 공룡알 화석지 같은 고고학상 중요한 문화재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후세



대에 어떠한 귀중한 자원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갯벌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심터가 되기도 한다. 생태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원래 야생성이었다고 한다. 며칠씩 굶어가면서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겨우 찾아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다시 미래의 식량이 보장되지 않는 새로운 날을 맞았다는 것이다. 그런 굶주림에 대비한 비상식량이 바로 우리 몸속의 피하지방층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신체는 야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우리는 드넓고 광활한 갯벌에 나가면 시원함을 느끼고, 자유와 안정을 찾는다. 갯벌을 비롯한 바닷가에는 매년 관광객과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갯벌, 자연이 인간에게 준 선물인 것이다.

‘생태계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갯벌

갯벌은 생태계의 제왕이다.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있다 보니 민물에 적응한 생물, 바닷물에 적응한 생물, 기수역에 적응한 생물 등 다양한 생물이 섞여 사는 갯벌은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이기 때문이다. 물론 생물다양성이 높다보니 사람들에게 주는 상품과 서비스도 다양하고 풍부하다. 그래서 농지나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보다 갯벌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연구 결과가 압도적이다.

갯벌이 농지나 산업단지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갯벌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귀중한 자연 유산이다. 만의 하나 갯벌이 공장이나 농지보다 경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래 세대가 갯벌을 통해 누릴 권리를 모두 빼앗을 수는 없다. ㉔



글쓴이는 숙명여대 경제학 석·박사, 해양수산부 정책평가위원, 환경부 먹는물관리위원회 위원